

제2부 부문별 행정

2

제3편 총무국

제2장 문화공보과

제1절 문화예술 행정

제2절 관광문화재 행정

제3장 공보행정



제1절 문화예술 행정

1. 문화예술 진흥

우리 구는 사적 제215호인 국내 최장의 금정산성과 천년 고찰 범어사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이자, 금정도서관·금정문화회관·스포원과 크·금정구민체육관 등이 있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웰빙 도시이며,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외에도 예술 중·고등학교가 소재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두루 갖추고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5」를 개최하여 지역산업(관광)연계형 축제의 성공을 거두었고, 축제를 통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개발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부산대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공연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부산대학로 일원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여 정기적인 문화공연 개최로 청소년·청년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관광·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가.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

■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개최

문화예술교육특구 금정구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행사와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독창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문화에서 문화예술의 근원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적 제215호인 금정산성과 민속주1호인 금정산성 막걸리 등의 지역특성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고, 전통 역사 문화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축제는 금정산 “금어”를 소재로 한 주제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채로운 체험 및 연계행사 등을 준비하여 가족단위 체험행사와 시민 모두가 다 함께 들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2013년부터 금정산 일원에서 개최하는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는 고유문

화의 우수성 등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금정산성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 및 동문 일원 역사재현 주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지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정산성과 연계한 대중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다양한 축제콘텐츠를 개발하여 금정산성과 막걸리의 우수성 홍보하고 지역 특산품 브랜드화, 금정산성과 막걸리의 이미지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금정구는 향후에도 지역 축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하우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제 주제(소재)와 관련된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프로그램 실행력 강화 및 집약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역 문화 예술단체와 주민과 직접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힘쓸 계획이다.

나.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

■ 금정문화원

2000년 7월 개원한 금정문화원은 우리지역 고유문화를 계발, 보급,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문화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해 첫날 부산의 영산인 금정산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소리·우리 춤·우리가락의 멋스러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춤·소리공연 흥겨운 국악한마당 개최와 향토문화지 발간, 어르신들의 문화학교운영을 통하여 구민화합과 전통문화의 전승·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매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에서 벗어나 온천천·부산대일원에 토요일상설공연, 여름밤 영화상영, 야외백일장 개최, 문화유적지 역사문화 탐방,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평생학습 박람회 체험행사 등 남녀노소 전 구민을 아우르는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타 지역 문화원 우수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로 교육문화특구 금정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가 관내 거주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학·미술·음악·사진·무용·연극·국악·서예·연예인협회 9개 분과 53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청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주관 또는 자문을 담당하기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제13회 금정사생대회」, 「금정문예 제17집 발간」, 「제18회 금정백일장」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10월에는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최대 행사인 금정예술제가 ‘구민과 함께하는 금정예술의 대향연’의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예술제 기간 동안 협의회 내 9개 분과 협회가 각각 「깃발시화전(문인협회)」, 「금정서예전(서예협회)」, 「제13회 금정사진전(사진협회)」, 「제18회 금정미술전(미술협회)」, 「금정열린음악회(음악협회)」, 「금정무용제(무용협회)」, 「금정연극제(연극협회)」, 「금정국악제(국악협회)」, 「금정가요제(연예인협회)」를 준비하여 지역 문화예술가들은 1년간 닦은 그 기량을 펼쳐 보이고, 주민들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금정구문화예술인협의회 구성 현황 〉

계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서예협회	국악협회	연예인협회
532	87	186	28	28	23	29	42	85	24

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 부산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부산대 일원은 90년대 최고의 젊음의 거리였으나, 날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대학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 홍대거리, 우수문화시설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14년 9월 부산대 일원 다양한 문화공간들과 연계하고 국내·외 아티스트와 함께한 거리문화축제 부산인디페스타 ‘ZERO FESTIVAL 2014’는 인디밴드 거리공연, 실내공연, 미술작품 전시, 포럼, 독립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를 선보여 일반 시민과 문화단체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문화단체 반상회 ‘금정예술공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단체간 협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문화공연이 함께하는 영화상영, 부산대학교 거리문화 전반에 대한 포럼, 전시 등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온천천 야외공연장 및 2013.10월에 조성된 도시철도 부산대역 앞 야외공연장은 만남·소통·어울림의 공간을 테마로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 ‘부산대학교 음악 오아시스’ 및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행사 등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부산대학교가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도약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

침체되어 가는 부산대학교를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활력 넘치는 젊음의 문화거리로 만들어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부산대 일원에 예술공연지원센터가 조성되었다. 2011. 12. 22.(목) 개소한 이래 예술공연지원센터는 부산대 일원의 다양한 청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매개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운영 기치가 대학로 청년문화 활성화인 만큼, 2015년 역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그 결과, 문화예술계 인사의 멘토링 강연과 공연을 결합한 「청춘 토크콘서트」 2회, 8회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나는 현장을 뛰는 기획자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과 동떨어진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피부에 와닿는 살아있는 경험담을 전해주고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문학소설로 하나 되어 통하다」, 「동아시아 연극

교류 세미나」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도움과 재미를 함께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물론 기존의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문화예술 분야는 개인 또는 단체의 열성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예술가 간, 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창발에서 기존의 흐름과 다른 새로운 문화예술이 탄생하는 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대효과 역시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에 특히 주목했다. 때문에,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 교류하는 「금정예술공연 네트워크」나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전 세계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개최된 「국제아트캠핑 아티스트 토크」 등을 통해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예술계에 자생력을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리 동네 뮤지션들의 ‘우리 동네 투어」」는 주민대상 악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정서적 치유와 자아실현 및 지역 예술단체와 주민사이의 소통과 교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여름 기획공연 「2015 대학로 열대야 페스티벌」과 겨울 기획공연 「2015 따끈따끈 콘서트」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예술공연지원센터의 공간 역시 알뜰하게 이용되어 센터 내의 전시 공간은 지역 문화 단체의 다양한 수공예 작품 전시, 오프라인 판매 등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다목적홀 대관 및 기획·협력 사업으로 200회가 넘는 행사가 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고 메르스 사태로 6월 한 달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문화나눔터, 온천천 어울마당은 총 90회의 대관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존의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축제성 행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도 꾸준히 시도하여 지역 문화예술계와 일반 주민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산 대표 문화예술거리를 만들고자 한다.

■ 서동예술창작공간 및 첫골문화예술촌 운영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동지역에 주민 밀착형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조성(지상 2층 529.62㎡), 다목적홀, 북카페, 작은도서관, 강의실, 갤러리 등을 갖추고 2012. 6. 28. 개관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추구하고 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2012년 개관이후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 2015. 3월에는 Earth Hour, 「지구를 위한 1시간, 지구촌 전등끄기」라는 주제로 탄소배출량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세계적인 불끄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아프리카 작은 영화제」를 유치하여 쉽게 접하기 힘든 신선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소개로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4월에는 서동예술창작공간 2주년 결과물을 전시·홍보하여 예술창작공간의 다양한 활동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9월에는 서동 거리 예술제를 개최하여 서동지역에 축제마당을 펼쳐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제2회 아우인형 전시회 외 15여차례의 전시회, 수요상설 영화상영 40회, 4월부터 11월 매주 토요일 토요일 상설 공연 개최하였다

또한 1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우수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운영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개 단체를 선정되어 서동주민들의 스토리 텔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통을 주제로 “서동의 목소리 보여”(1편) 책을 발간하였으며, 시장원리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4가지 형태의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연극놀이, 영상제작등) 통한 ‘서동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서동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지역문화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발굴에 기여하였다.

2012년 개관이래 각종 언론에 주목되기 시작하였으며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를 만나다”, 등 서동예술창작공간의 프로그램들이 집중 소개되었고 40회 이상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외에도 대관 및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는 복합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상주연주단체 등 문화예술 협력단체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또한, 서동예술창작공간과 더불어 서동지역의 문화예술 도시구현을 위한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부산시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아 인근공간 주택건물(서부로 16번길 21-4)을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인 작업공간인 “섯골문화예술촌”을 조성하였다. 지상2층 135.47㎡로 작업공간과 거주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섯골문화예술촌”이란 서동의 옛 지명인 “섯골”과 “문화예술촌”을 결합하여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입주작가 공모를 통하여 캘리그래피, 클레이아트, 생활공예, 공공예술기획, 공예작가단체 등 총 5개팀이 선정되어 입주를 마치고 창작활동중에 있다.

앞으로도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서동지역이 문화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컨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섯골문화예술촌”을 필두로 예술가들의 창작인프라 구축 및 지역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문화 공간 현황 〉

계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문예·기념비	동상	김정환생가
20	1	3	2	1	2	9	1	1

〈 문화회관 현황 〉

명칭	소재지	좌석수	관리자
금정문화회관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구서동)	대공연장 868석	금정구청
		소공연장 330석	

〈 박물관 현황 〉

명칭	소재지	규모		관리자
		면적	소장품	
부산대학교 박물관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장전동)	1,900㎡	유물 21,235점	부산대학교
범어사 성보박물관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502㎡	1,870종 4,943점	범어사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금정구 오륜대로 106-1(부곡동)	1,591.76㎡	유물 등 3,000여점	한국순교복지수녀회

〈 도서관 현황 〉

명칭	소재지	규모		관리자
		면적	소장품	
서동도서관	금정구 서부로 76번길5(서동)	610.2㎡	도서 64,694권	부산시교육청
금정도서관	금정도서관로 33 (청룡동)	8,466㎡	도서 67,002권	금정구청

〈미술관 현황〉

명 칭	소재지	규 모		관 리 자
		면 적	소 장 품	
김스아트필드 미술관	금정구 죽전1길 29(금성동)	271.4㎡	조각,회화 등 271점	정영재

〈영화상영관 현황〉

명 칭	소재지	좌 석 수	관 리 자
롯데시네마오투	금정구 중앙대로 1607(부곡동)	총 1,175석	이원준
CGV 부산대	금정구 장전로 12번길55(장전동)	총 1,186석	박은희

〈문예기념비 현황〉

명 칭	소재지	설립일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4. 4. 26	금정구청장
향파 이주홍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2. 14	금정구청장
김종식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58-2)	'94. 4. 9	금정구청장
황산 고두동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7. 2. 22	금정구청장
김대륜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35-21)	'98. 2. 28	금정구청장
3·1운동 유공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11. 28	금정구청장
민영훈공 거사비	금정구 부곡2동 255-8	'93. 7.	금정구청장
신정용열사 추모비	금정구 남산동 산1-1	'96.4.19.	금정구청장
6·25참전용사기념비	금정구 노포동 810-6	'03. 6. 18	금정구청장

제2절 관광문화재 행정

1. 문화재 현황

우리 구에는 지정문화재 총 98점(국가지정문화재 16점, 시지정문화재 82점)이 있으며, 보관 장소로는 성보박물관, 범어사내, 기타 등으로 대부분의 문화재인 불교관련 서적 및 불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

2. 문화재 보호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는 사적 제215호로 우리나라 성곽 중 가장 규모가 큰 숭고한 호국정신이 깃든 국방유적지인 『금정산성』(길이 18,845m)과 국가지정 보물인 대웅전, 삼층석탑, 조계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인 등나무군락 외에도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범어사』가 있으며, 이는 부산의 대표적 문화관광 유적지이기도 하다.

특히 금정산성 복원사업은 호국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선·두구·노포·오륜동 지역은 『노포동 고분군』을 비롯한 고분군 문화유적지로서 삼국시대와 가야시대의 유물이 발견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구는 금정산과 범어사 등의 넓은 지역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들에 의한 문화재 훼손 및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호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관리 실태

금정산성은 문화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복원사업 중에 있으며, 관리 기관은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범어사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목조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화관리 용역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금정산성과 범어사 등 문화재가 소재한 현지에 문화재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청결활동 및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재 소개 및 안내 등 홍보활동도 담당하게 하여 문화재의 보호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나. 보호 관리 대책

■ 화재예방

중요목조문화재(범어사 대웅전, 조계문 주변)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을 배치(6명)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범어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소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화재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 정기적인 관리실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산객과 관광객들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 문화재 보수

가. 금정산성 정비사업

금정산성은 국내 최대의 국방유적지로서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 복원하고 있으며, 민족문화 유산의 온전한 복원과 쾌적한 유적지 환경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문루·망루 8개소 및 성곽을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 성곽보수가 체성 형태로만 보수 승인되었으나, 2009년 보수공사 시행시 문화재위원 현장 확인, 자료 고증 등 수차례 협의에 의한 여장 설치로 제 모습을 갖춘 웅장함과 볼거리 제공으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2015년에는 17억을 투입하여 서문 해체보수 및 성곽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정산성 복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중이다.

나. 범어사내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범어사는 금정산, 금정산성과 연계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보물인 범어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는 지역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 또한 부산의 역사와 같이 하는 천년고찰로서 사찰의 풍취와 면모를 일신하고자 노후되거나 조잡한 요사채를 개·보수하는 등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6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사채 증·개축 및 주변정비사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0년 대웅전 벽화모사 보수 보존처리와 강원건물 및 성보박물관 보수 정비 하였고, 2011년 보제루 해체 복원,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원효암 대웅전 및 요사채 해체보수, 2013년에는 일로향각, 청풍당, 비로전, 미륵전 해체보수 등 대웅전과 조계문 주변 정비, 2014년에는 범어사 대웅전 휴휴정사 해체보수 및 석축 정비, 2015년에는 범어사 관음전, 서향각, 산령각 보수, 팔상독성나한전 석축 보수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운영

범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왜적의 침입에 맞서 이 땅을 수호해 온 호국 사찰로 수많은 고승과 율사를 배출한 전통사찰이다. 사찰 내에 많은 문화재를 수장하고 있으나 보존하는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1999년 사업비 2,209백만원으로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2000년 완공하였으며 2010년에 3억원으로 내부 전시실 인테리어 및 수장고 보수를 마무리하였다. 연면적 505.44㎡의 유물전시관에는 보물 제419-3호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수책판 등 22종 283점의 동산문화재를 전시하고, ‘금어연’ 제작, 관조스님 유작 필름과 백운스님 소장전적을 기증받아 정비하는 등 관광객에게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까지 길이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4. 무형문화재 전승보급 추진

우리 민족 전통예술의 보전과 육성보급을 위하여 지정한 동래고무(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전수학교로 부산예술고등학교 20명, 동래지신밟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4호) 전수학교인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48명, 동래학춤(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2호) 전수학교로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45명, 2013년에 새로 수영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전수학교로 지정된 서명초등학교 50명에 대하여 전승보조금(24,450천원)을 지원하여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각종 예술행사 개최 시 공연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수를 고취시킴은 물론 우리민족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대외에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 보존 관리

천연기념물 제176호(1966.1.13. 지정)인 범어사 등나무 군락은 6,500여 그루의 등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는 희귀한 자생지로 예로부터 범어사 계곡 일대에 등나무 꽃이 필 때면 그 경치가 아름다워 ‘등운곡(藤雲谷)’이라고도 불리어 왔다.

등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 덩굴식물로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에 맺는데, 이곳은 수령이 약 100년 된 큰 등나무를 비롯하여 280여 종의 거목들과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과도 같은 지역이다.

그러나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는 나무가 고사하면서 등나무도 따라서 고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사업비 242백만원을 확보하여 생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사업비 1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관찰로 825m 설치, 등나무 외과수술, 덩굴정리 및 당김줄 설치, 의목 설치 등 입지성 회복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등나무 군생지는 보기 드문 자연원시림으로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사업비를 100백만원으로 등나무보호사업, 탐방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220백만원으로, 2015년에는 상시관리 외 식생 정비 예산을 추가하여 등나무 군락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6. 관광금정 구축

2015년 구상사업 금정 팸투어를 통해 확보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사진과 설명을 게재하여 관광객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관광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금정구 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공항, 호텔 등에 배부하였으며 범어사와 금정산성 내 무분별한 안내관을 정비하여 원활한 문화재 안내정보 및 안내 체계를 개선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그리고 역사·문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기억에 남는 체험관광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범어사, 금정산성 등 외래방문객의 방문이 잦은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금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5월 금성동 688번지 일원 공해마을 인근에 금정산성의 국가 사적으로서의 가치 증대 및 관광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목적 광장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의 장으로 활용 외에도 상설공연, 홍보·활용 체계구축 등 활성화 추진으로 시설효용 증대 및 금정산을 찾는 시민 및 방문객에 대한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고장 금정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특색에 맞게 발굴·관리하여 관광금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 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관광금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 총 현 황 〉

(2015. 12. 31. 현재)
 점)

(단위 :

계	국가지정문화재 (16)							시지정문화재 (82)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98	-	10	1	1	1	1	2	51	1	3	1	26

〈 국 가 지 정 문 화 재 〉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보 물 (제1733호)	부산 국청사 청동북 (釜山 國淸寺 靑銅金鼓)	1666년에 조성된 국청사 금고는 직경이 65.3cm에 이르는 제법 규모가 큰 작품으로 일부 산화된것 외에는 파손된 곳이 없이 보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조선후기 금고의 선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	2011.12.23	범어사 성보박물관
사 적 (제215호)	부산 금정산성 (釜山 金井山城)	신라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산성으로 임란이후 현 규모로 조성된 국방유적임	1971.2.9	금성동일원
천 연 기념물 (제176호)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釜山 梵魚寺 藤나무群落)	수령 100년생의 등나무 5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면적 55,934㎡)	1966.1.13	청룡동 산2-1 범어사경내
무 형 문화재 (제80호)	자수장 (刺繡匠)	여러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아 나타내는 조형활동의 전통공예기술	1996.12.10	중앙대로179 3번길 50
중요민속 문화재 (제274호)	의왕 원유관 (義王 遠遊冠)	고종과 귀인 장씨 소생인 의화군이 의왕 책봉때 착용한 왕실용 관모로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원유관임	2013.06.14	오륜대한국 순교자박물관
등록 문화재 (제641호)	부산대학교 구 본관	김중업의 작품으로 그의 초기 건축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 중 하나로 가치가 있음.	2014.10.30	부산대 학 교 박물관
등록 문화재 (제642호)	부산대학교 무재개문 및 구수위실	지면에서 떠있는 구조로 전면에 큰 유리창 구성을 하고 있는 등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한국 현대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김중업의 작품으로 가치가 있음.	2014.10.30	부산대 학 교 박물관

〈 시 지 정 문 화 재 〉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보 물 (제250호)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釜山 梵魚寺 三層石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탑으로 당시의 불탑 및 조각수법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1963.1.21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보 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三國遺事 卷四~五)	일연이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 서울 광영대 소장본이 보물 419호로 지정되어 있음. (1512년 중종 7)	2002.10.19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434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釜山 梵魚寺 大雄殿)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을 조선 중기에 중창한 목조 건물로 불당의 구조 및 양식이 잘 나타 나 있음	1966.2.28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보 물 (제1461호)	부산 범어사 조계문 (釜山 梵魚寺 曹溪門)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건 물로서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한 일주문의 걸작품임	2006.2.7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보 물 (제894-2호)	주범망경 (注梵網經)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경전으로 후진의 구마라집이 번역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인데 줄여서 주범망경이라고 함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224-2 호)	불조삼경 (佛祖三經)	인도에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불설사십이장경과 부처의 최후 가르침 인 불유교경, 그리고 중국 위양종의 초조인 영우의 위산경책 등 불경 3종이 합집된 것임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525호)	금강요집경 권1~2 (金藏要集經 卷一~二)	이 책은 북제(北齊)의 승려 도기(道紀)가 각 경전에서 불교 교화에 도움이 되는 인과응보에 관한 설화를 중심으로 편찬 한 7권 가운데 2권(권1-2)임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526호)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釜山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이 삼존좌상은 범어사 대웅전의 주불로서 개금시(改金時) 복장에서 발견된 불상기문 과 불상기인발원축을 통하여 석가불과 미륵 보살, 제화갈라보살의 수기삼존불로 조성	2007.9.18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보 물 (제1596-2호)	목장지도 (牧場地圖)	숙종 때 국가의 중대한 마정(馬政)의 정 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목장의 실태에 대한 그림과 지리적 지식을 정리하여 편 찬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회화 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2008.12.22	부산대학교 도서관내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 형 문화재 (제9호)	오층석탑 (五層石塔)	전형적인 오층석탑으로 1층 4면에 각 천왕의 특징이 뚜렷한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음	1972.6.26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11호)	원효암 동편 삼층석탑 (元曉庵 東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원효암
유 형 문화재 (제12호)	원효암 서편 삼층석탑 (元曉庵 西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25 원효암내
유 형 문화재 (제15호)	범어사 당간지주 (梵魚寺 幢竿支柱)	법회나 의식이 있을 때 대형 기치를 걸어두는 지주로 장식이 전혀 없어 간결 소박한 멋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16호)	범어사 석등 (梵魚寺 石燈)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등으로 각 부분이 8각으로 되어 있음	1972.6.26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 형 문화재 (제25호)	이안눌 청룡암시 목판 (李安訥 靑龍巖詩 木板)	동래부사였던 이안눌이 범어사를 방문하 고 지장전 옆 바위에 새긴 시를 목판으 로 판각한 것 (1609년 광해군 원년)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6호)	천수 책판 (千手 冊版)	7판으로 된 천수경판으로 김해 감로사 에서 개간한 것을 범어사로 옮겨와 간 행한 것 (1676년 숙종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7호)	어산집 책판 (魚山集 冊版)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범어사에서만 소 장하고 있는 범응집의 일종으로 범패연 구에 귀중한 자료임 (1700년 숙종 2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8호)	범어사기·, 범어사창건사적· 범어사고적판 (梵魚寺紀 梵魚寺 創建史蹟, 梵魚寺古蹟板)	범어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을 새긴 3종 의 목판으로 古木板 (1700년 숙종 2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9호)	선문촬요 책판 (禪門撮要 冊版)	중국 역대 선사들의 저술과 우리나라 고승들 의 저술을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0호)	권왕문 책판 (勸往文 冊板)	몽매한 중생들을 깨우쳐 불심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의 권왕가, 자책가, 서왕가를 언 문으로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2호)	태전화상주심경 (太顛和尚柱心經)	당나라 고승인 태전화상이 반야심경에 주석 을 단 책 (1411년 태종 11)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3호)	함허어록 (函虛語錄)	조선초 고승인 근화의 시문집으로 우리나라 불교연원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임 (1440년 세종 2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4호)	지공직지 (指空直旨)	인도 승려인 지공선사의 진리의 깨달음 에 관해 이야기한 책 (1475년 성종 6)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5호)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당나라 원각이 수행과정에 대해 적은 책으로 1381년판본이 보물 641호로 지정됨 (1542년 중종 3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6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경전 으로 1378년 판본이 보물 705호로 지정됨 (1562년 명종 1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7호)	육조대사법보단경 (六朝大師法寶壇經)	禪宗의 6대조 慧能의 일대기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경전처럼 존중 받는 책 (1569년 선조 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 형 문화재 (제38호)	금강반야바라 밀경변상 (金剛般若波羅 密經變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 한 책 (1570년 선조3)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9호)	불조역대통재 (佛祖歷代通載)	석가탄생에서 1334년까지 고승대덕의 전기를 편년체로 수록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 737호로 지정되어 있음 (1430년 세종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40호)	몽산화상범어약록 (蒙山和尚法語略錄)	원나라 몽산화상 범어를 요약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 768호로 지정되어 있음 (1579년 선조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41호)	범어사 묘법연화경 (梵魚寺 妙法蓮華經)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문헌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임 (1527~1711년 중종22~숙종3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1호)	범어사 사천왕도 (梵魚寺 四天王圖)	1869년 제작, 세로350cm 두루마리 형으로 사천왕상 단독으로 그려진 불화는 현재 범어사 소장본이 제일 규모가 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2호)	범어사 제석신중도 (梵魚寺 帝釋神衆圖)	기년명이 뚜렷하여 제작시기를 알 수 있고 19세기 명문서식과 조선후기 영남 지역 화승들의 계보를 참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3호)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 觀音殿 白衣觀音菩薩圖)	자애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관음보살도로서 관음전 전각의 관음불상의 후불화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4호)	범어사 의상대사영정 (梵魚寺 義湘大師影幀)	고려시대 양식 계승, 1767년 작품으로 조선후기 불교회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63호)	범어사 팔상· 독성·나한전 (梵魚寺 捌相· 獨聖·羅漢殿)	한 채에 세 법당을 연이어 붙인 길쭉한 건물로서 1613년 묘전화상이 나한전을 창건, 1705년 명확스님이 팔상전을, 1905년 학암스님이 현재의 건물로 새롭게 중건함	2006.7.3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7호)	범어사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釋迦靈山會上圖)	1882년에 제작된 족자형의 대형 탕화이다. 대형 화면에 본존불을 위시한 협시상들과 엄숙한 표정의 신중들이 잘 조화를 이룸	2006.11.2 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8호)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梵魚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1882년에 제작 상·하단으로 나누어진 화면의 천장 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좌상의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함	2006.11.2 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9호)	범어사 대웅전 제석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帝釋神衆圖)	대웅전 내부 우측 벽에 걸려 있는 이 작품은 조선후기 신중도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음	2006.11.2 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0호)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觀音殿 木造觀音菩薩坐像)	18세기 전반의 작품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이며, 작품이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할 뿐 아니라, 특히 대좌의 묵서명에 의해 제작시기, 봉안처, 조각승 등이 확실히 밝혀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 형 문화재 (제71호)	범어사 비로전 목조보살삼존불좌상 (梵魚寺毘盧殿 木造菩薩三尊坐像)	관음전 목조불상과 함께 조각승 진열의 작품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2호)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梵魚寺彌勒殿 木造如來坐像)	미륵전에 단독불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현재 범어사에 봉안된 목조 불상 중 규모가 가장 큼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3호)	범어사석조연화 대좌하대석 (梵魚寺石造蓮花 臺座下臺石)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좌 중 폭이 47cm에 이르는 규모가 큰 8각의 하대석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6호)	불설장수멸죄회 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 護者童子陀羅尼經)	인도 승려 불타파리(佛陀波利)가 676년에 번역한 책으로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설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삭가세존(釋迦世尊)이 문수사리보살(文殊師利菩薩)에게 일체 중생의 멸죄장수(滅罪長壽)의 법을 설(說)한 경	2007.9.7	금정중학교 (중앙대로 2104)
유 형 문화재 (제80호)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 密經)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혀졌던 대표적인 불교경전 중의 하나로서 금강경(金剛經) 또는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이라고도 불림.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81호)	보리달마사행론 (菩提達摩四行論)	달마의 선사상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 있고, 행입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생활방식으로 사행(四行)이 있음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82호)	선문염송집 (禪門揔頌集)	이 책은 한국 선불교에 초석을 놓은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의 제자인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이 지눌에 의해 주창된 간화선(看話禪)의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염·송·사당거화(拈·頌·士堂擧話) 등 중요한 말들을 모아 총 30권으로 집성·편찬한 책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90호)	범어사 동종 (梵魚寺 銅鐘)	1728년에 제작된 범어사 동종은 우리나라 18세기 범종 주성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전라도 출신 김성원과 김선봉이 주성한 것으로 현존하는 18세기 범종으로 규모가 제법 큰 편에 속하는 작품.	2008.9.11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96호)	범어사 원호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梵魚寺元峯庵 木造觀音菩薩坐像)	본 보살좌상은 방형의 얼굴, 뭉툭한 코, 머리의 비례가 짧음, 대의의 특징 중 목 좌우측 옷깃이 역삼각형을 이룬 점, 대의 끝자락이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으로 처리된 점 등은 모두 조선시대 17세기 불상 혹은 보살상에서 흔히 엿보이는 특징과 유사	2008.12.16	원호암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형 문화재 (제130호)	금천선원 묘법연화경 (金泉禪院 妙法蓮華經)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 으로 1477년에 간행된 오래된 판본으로 전 해지는 7권 완본임	2013.10.23	금천선원 (금샘로271)
유형 문화재 (제136호)	마흥목처신반진씨 지석 (馬興牧妻新反陳 氏誌石)	조선 초기에 도자기로 만들어진 15세기 지 석의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 품이며, 당시의 행정구역과 지명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	2014.1.22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 문화재 (제139호)	범어사 사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 獅子庵 石造菩薩坐像)	20세기 초 부산 지역 불상과 조각승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현재 범어사 팔상전과 나 한전에 남아 있는 20세기 초 불석재 불상들 에 대한 연구에도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작품	2014.3.19	사자암
유형 문화재 (제141호)	범어사 원효암 아미타삼존도 (梵魚寺 元曉庵 阿彌陀三尊圖)	1892년에 금어 해규(金魚 海珪)가 단독으로 제작하여 범어사 원효암에 봉안, 이 작품은 19세기말 아미타내영 형식의 삼존도상 연구 는 물론 화승인 해규의 화풍을 파악하는 데 가치가 있는 작품	2014.5.21	범어사로250 범어시경내
유형 문화재 (제142호)	아미타내영도 (阿彌陀木內圖)	화기를 통해 1813년에 성총(性聰)이라는 화 승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상도 지역 에서 제작된 선묘불화의 하나로 파악, 특히 조선 후기 선묘불화 중 흑지 바탕에 금니로 제작된 흑탱(黑幀)로, 희소성을 지닌 불화	2014.5.21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 문화재 (제143호)	칠성도 (七星圖)	19세기 중반 경에 제작된 중소형급의 채색 불화로, 화사(畫師) 익찬의 화풍을 파악하는 데 가치가 있는 작품	2014.5.21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 문화재 (제144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木造阿彌陀如來坐像)	크기는 작지만 얼굴, 옷주름, 연화좌 위로 흘러내린 옷자락의 표현 등에서 조각가인 상정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며, 제작시기, 제작자, 용도와 기능이 명확하여 18세기 불상 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높음.	2014.5.21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 문화재 (제154호)	금동십일면관음보 살좌상 (金銅十一面觀音菩 薩坐像)	십일면관음이라는 도상적 특징, 지권인의 수인, 천의를 광배처럼 두른점, 화려한 장식 등에서 사례가 별로 없는 이색적 작품이며 조형적 우수함과 더불어 고려시대 보살상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작품임	2015.3.18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 문화재 (제155호)	범어사 비로전 (梵魚寺 毘盧殿)	임진왜란 이후 부산 지역 목조 건축의 전 형으로 자리 잡았던 익공식 맞배집의 우수 한 사례로 익공식 공포의 변천과정을 이해 하는데 귀중한 자료임	2015.7.15	범어사로 250 범어시경내
유형 문화재 (제156호)	범어사 미륵전 (梵魚寺 彌勒殿)	미륵전은 범어사의 창건, 중창에 즈음한 역 사적 상황과 가람배치, 건축 상황을 기록한 범어사창건사적 등에 핵심적 서술 대상이며 특히 임진왜란 이후 부산 지역의 시대적, 건 축적 지역성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적 가치 가 높은 건축유구임	2015.7.15	범어사로 250 범어시경내
유형 문화재 (제166호)	훈몽자회 책판 (訓蒙字會 冊版)	책판은 인(引)·상·중·하권 총52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국내에서 조사 보고된 적이 없는 판본이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우리 국어 의 음운사와 어휘사 변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음	2015.11.18	부산대학교 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형 문화재 (제167호)	범어사 극락 칠성도 (梵魚寺極樂 七層圖)	극락암 칠성도는 원래 11폭으로 구성된 불화이나 치성광여래도 1폭과 칠성여래 2폭 등 총3폭이며 작품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화풍도 섬세할 뿐만아니라 조선후기 도상 연구에 학술적 가치가 높음	2015.11.18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중요무형 문화재 (제24호)	전 각장 (篆刻匠)	목각과 석각 외에도 동각, 와각, 도자각, 금속각(銅刻, 瓦刻, 陶瓷刻, 金屬刻)이 모두 가능하며, 나무의 종류에 따른 성질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돌의 재질에 대한 판독도 능함	2014.12.24	금샘로 591
기 념 물 (제15호)	금정산성부설비 (金井山城復設碑)	1808년 금정산성을 재축한 후 이에 대한 공사관계 사항 등을 기록한 비	1972.6.26	금강로 217
기 념 물 (제42호)	노포동 고분군 (老圃洞 古墳群)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에 걸친 삼한시대 후기나 삼국시대 초기의 분묘 유적으로서 주거지 2동, 토광묘 45기, 옹관묘 6기에서 토기, 철기, 석기 등의 유물 출토	1996.5.25	노포동 142-1,2
기 념 물 (제62호)	금정산 금샘 (金井山 金井)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이름이자 범어사 창건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명소로 많은 전설과 역사를 간직한 신비한 암괴류	2013.9.25	청룡동 산2-1
민속자료 (제1호)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梵魚寺 皇室祝願 莊嚴繡)	한말 황실에서 범어사에 하사한 장엄수로서 당시 궁중 자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1899~190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호)	순치8년명 청동은입사향완 (順治8年銘 靑銅銀入絲香盃)	조성연대, 조성지역, 봉헌지 등이 명기되어 있어 조선시대 향완양식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1651년 효종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호)	도광명유제양이부 대발 (道光銘鍮製 兩耳附大鉢)	불교 공예품 중 의식법구로서뿐 아니라 사찰의 바루공양 의식 단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1822~5년 순조 25~28)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5호)	동치원년명 범어사 금고 (同治元年銘 梵魚寺 金鼓)	고려시대 조성된 금고 양식을 계승한 조선 후기의 대형 금고로서 조성연대, 시주자 등을 명확히 알려주는 자료임(1862년 철종 13)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6호)	선방 축성패 (禪房 祝聖牌)	사찰 선방에 모셔놓고 스님들이 예불을 드릴 때 기원하던 축성패로서 당시 궁중자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임.(한말)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0호)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주색지에 백색선묘 기법을 지닌 비왕실 계층 민중불화의 백색선묘 불화의 흐름을 이은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1호)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淸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와 표현기법이 동일, 제작시기는 1860년대로 조선 후기 불교미술연구에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2호)	범어사 석가 26보살도 (梵魚寺 釋迦 二十六菩薩圖)	1887년 제작,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하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문화재 자 료 (제13호)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梵魚寺 毘盧遮那佛會圖)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 하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4호)	범어사 칠성도 (梵魚寺 七星圖)	1891년 제작으로 범어사의 불교미술양 식과 계보를 살필 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1호)	범어사 목조시방삼보존패 (梵魚寺 木造十方三寶尊牌)	조선시대 원패의 일반적인 형태, 조선 후기 불교의식구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2호)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위패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位牌)	조선후기 불단 봉안 목패의 기본형태 인 능화형 주연과 연화대좌 및 운룡 문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3호)	범어사 목조 옴마니반메흠소통 (梵魚寺木造 옴마니반메흠疏筒)	조선후기 소통 중에서도 돋보이는 작 품으로 조선후기 불교의식과 불교공예 를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4호)	범어사 목제어피인통 (梵魚寺 木製魚皮印筒)	정방형에 가까운 몸체와 우진각형 뚜껍의 기 본골격은 목재로 가구하고 그 표면을 어피로 감싼 후 각 모서리마다 황동 장식으로 마감 한 조선후기의 인통으로 대찰(大刹)에서 제작 하여 전해지는 불교공예품으로 드문 유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5호)	범어사 연 (梵魚寺 輦)	가마채인 네 개의 손잡이, 작은집 모 양의 몸체, 돛 형식의 옥개로 구성되 어 조선후기에 제작되어 그 시대의 연 의 형태를 고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6호)	범어사 바라 (梵魚寺 饒鉞)	낫쇠를 두들겨 제작한 방자유기로 제 작연대가 오래된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6호)	금정진 관아터 (金井鎭 官衙址)	조선후기 왜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국내 최장의 산성인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방시설의 유지(遺址)로서 관 아 규모, 운영, 직제, 성격과 관군과 승 군들이 머물며 생활했던 생활상을 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	2006.7.3	금성동 280번지 일원
문화재 자 료 (제44호)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 (國淸寺 金井山 城僧將印)	승병의 통솔 및 관할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승병관계를 실증적으 로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	2008.9.11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5호)	범어사 자수수복문 병풍 (梵魚寺 繡壽福文 屏風)	조선 말기 불교에 뜻있는 궁인(宮人)이 제작 하여 발복 청원의 뜻으로 범어사 에 공양한 것으로 보이며 자수의 기법 은 뛰어나지 않으나 각 글자의 색조 를 달리하여 녹(綠), 청(靑), 자(紫), 남 (藍), 황(黃), 홍(紅), 흑(黑), 백(白) 등 최소 8가지 이상의 자연 염색된 비단 실로 수 놓여짐	2008.9.11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문화재 자 료 (제48호)	범어사 내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內院庵 石造菩薩坐像)	눈, 코, 입이 작은 편이며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고, 수인은 두 손 모두 땅을 향해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두건과 수인을 통해 이 보살상은 지장보살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도상은 좀 더 연구 필요함.	2008.12.16	범어사 내원암
문화재 자 료 (제52호)	석조여래좌상 (石造如來坐像)	광서18년(1892년) 제작되었고, 제작자인 금어비구(金魚比丘)는 해규스님으로 밝혀짐 소형이지만 불상 조각양식상 조선 후기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 수작(秀作)의 불상 작품	2010.5.24	금정중학교
문화재 자 료 (제57호)	범어사 고려삼층석탑 (梵魚寺 高麗三層石塔)	이중기단에 옥개받침을 지닌 옥개석 등 통일신라시대의 전형 석탑양식을 따르고 있는 석탑이다. 다만 석탑의 전체적인 규모와 하층기단 면석에 하대저석을 조출한 점, 3단 각형으로 알개 표현된 옥개받침 양식 등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조성된 석탑으로 판단됨	2011.3.26	범어사로25 0 범어사경내
문화재 자 료 (제71호)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2책으로 된 목판본으로 17세기~18세기초에 판각하여 후쇄한 것으로 조선시대 윤리관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	2013.10.23	부산대학교 도서관
문화재 자 료 (제77호)	범어사 사자암 칠성도 (梵魚寺獅子庵 七星圖)	도상들의 표현 기법이나 광배의 장식문양 등은 18세기 이후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음영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낸 구름 표현은 19세기 말~20세기 금호당 약효와 문성 일파의 불화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입체적인 표현	2014.3.19	사자암
문화재 자 료 (제81호)	거제선생안 (巨濟先生案)	거제도 지역에 재임한 역대 수령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기록한 누가식(累加式) 필사본 2책으로, 16세기 전반기부터 1907년까지 재임한 수령들의 관계(官階), 임명·부임·교체 시기, 이임 사유 등 거제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	2014.11.26	부산대학교 도서관
문화재 자 료 (제82호)	한중일관계사료초 (韓中日關係史料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작성한 자료이며 1900년대 초 일본 주도의 한국사 연구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	2015.3.18	부산대학교 도서관
문화재 자 료 (제86호)	석조석가여래좌상 (石造釋迦如來坐像)	결가부좌한 자세에 항마촉지인을 취하며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 재료는 활석으로 조선시대 불상에서는 보기 드문 재료이다. 활석제 불상에서 보이는 제작기법상의 특징으로 개항기 이후 불교조각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음	2015.5.20	부산대학교 박물관

제 3절 공보행정

1. 공보행정의 기본방향

최근 정보화시대를 넘어 스마트시대로 일컬어지는 시대를 맞으면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을 위한 공보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보행정의 목표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구정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양방향적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구는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효과적인 홍보 기법을 개발해 보다 앞서가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일방적으로 구정을 알리는 행정에서 새로운 구정 시책에 대한 비판과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 수렴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구정모니터 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보다 알찬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대 구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개 행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보행정의 방향을

- 첫째, 지역 언론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 둘째,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 셋째, 금정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및 SNS(트위터, 블로그) 운영 등 적극적인 구정 홍보

로 정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언론매체(신문, 방송 등)를 통한 홍보

구정의 각종 시책 등 보도자료를 구 출입 7개 언론 방송사를 비롯하여 총 56여개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다수의 주민이 빠르고 정확하게 구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다.

언론매체는 전파를 통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지면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공중파 TV 매체의 지방뉴스시간 등을 활용하여 구정시책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방송 매체인 CJ헬로비전 방송과 연계하여 각종 행정정보와 구정소식을 방송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면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으로 각 일간지와 지역신문의 사회면, 포토 뉴스란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구정에 대한 자료를 전해주고 있다.

특히 최근 상당한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뉴스 매체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구정홍보 등에 좋은 효과를 낳고 있다.

방송은 전달 이용 범위가 넓고 현장감이 있어 호소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 신문은 독자층이 광범위 하고 공신력이 높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며, 인터넷 뉴스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파급력이 크므로 이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보도 자료를 작성, 제공하고 있다.

언론매체도 홍보여건의 변화 추세에 따라 개방화·생활화 되고 있으므로 언론인과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브리핑 제도의 정례화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 2015년 언론보도 현황

- 언론보도 : 1,728회(홍보성 1,378회, 시정성 47회, 중립성 303회)
- 자료제공 : 중점사업, 당면현안업무, 우수시책, 수범(미담사례) 등

나. 월간 「금정소식」 발간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구정의 홍보와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일 「금정소식」을 제작 발행하여 구정 주요소식이나 생활정보, 지역미담 사례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정소식」은 지난 88년 1월 우리구 개청과 더불어 발간해 오다가 시대적 환경 변화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02년 4월부터는 타블로이드 16면으로 증간하여 현재 매월 45,500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인 「e-book 금정소식」을 발행하여 홈페이지에서 상시 구독 가능하고 인터넷 구독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개인 메일로 송부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금정소식지 발행 : 12회 546,000부(매월 45,500부)
- 2007년 2월부터 40,000부 발행, 2012년 3월부터 45,500부 발행
- 배부처 : 구청,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지하철역, 아파트, 대형마트, 영화관 등
- 인터넷 신문(e-book 금정소식) 발행 : 12회(구 홈페이지 게재)
- 메일링서비스 신청 구독자 수 : 1,900여명

다. 실시간 미디어 SNS를 활용한 홍보

정보화 시대의 환경에 발맞춘 홍보 방안으로 2011년 3월 31일부터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2014년 11월)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구정행사 및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구정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금정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해 활동함으로써 ‘Feel금정’ 블로그 등의 SNS에 서포터즈들이 취재한 다양한 콘텐츠와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올려 한층 더 친근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 금정구 트위터 운영 (<https://twitter.com/geumjeonggu>)
- 팔로워수 : 5,847명(누적)
- 금정구 블로그 운영 (<http://blog.naver.com/geumjeonggu>)
- 방문횟수 : 303,484회(누적)
- 금정구 페이스북 운영 (<http://facebook.com/geumjeonggu>)
- 팬수 : 1,270명(누적)

2015 언론으로 본 금정구

【부산시 교육청 선정, 토요스쿨 우수상】

부산일보

2015년 01월 26일
27면 (인물)



토요스쿨 교육감 표창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지난 2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4 토요스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감 기관표창을 받았다.

(8.3*6.2)cm

▶ IBS중앙방송 1.21. / 국제신문, NEWSIS, 부울경 뉴스 1.22. / 리더스경제 1.23.

/

부산일보 1.26.

【금정구, 문화예술교육 특구에서 세계시민교육 수도로】



2015년 01월 07일
(종합)

금정구, 문화예술교육 특구에서 세계시민교육 수도로

부울경뉴스 webmaster@bulgungnews.com

금정구(구청장 원정희)가 민선6기 구정목표인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을 실현할 세계시민교육담당을 신설하고 첫 날개짓을 시작했다.

세계시민교육담당의 첫 사업으로 오는 1월 17일과 18일 미 국무부가 후원하는 '한미청소년 교류 캠프'가 열린다.



이번 1박2일 캠프에서는 금정구 관내 고등학생 15명과 미국 청소년 15명이 참여해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화시대를 대비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캠프에 앞서 금정구 청소년 15명은 1월 16일 오후 구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일정 안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등 사전 교육을 받는다.

구에서는 지난해 12월 관내 고등학생 중 미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학생을 학교별로 접수 받아 15명을 선발했다

17일(토)부터 시작되는 캠프는 구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환영식을 시작으로 서로 마음을 여는 친목활동 후 서동시장과 예술창작공간 탐방, 팀별 발표시간을 갖고 밤에는 부산외국어대 기숙사와 강당에서 '한미문화의 밤' 행사를 한다

18일(일)에는 범어사를 방문해 관광과 선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진 후 구청 수료식으로 캠프를 마무리하게 된다.
금정구는 미 국무부 후원 캠프를 주최함으로써 글로벌 교육을 향한 의지를 제고하고 청소년 국제 교류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한미청소년 교류 캠프를 마무리한 후 1월 하순에는 직원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골목하마디 유엔협회세계연맹 사무총장'의 초청강연을 계획중이다.

금정구는 지난 2012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 받아 작년에는 2013년 한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우수상'으로 평가 받았으며, 그 여세를 몰아 2015년에는 교육특구사업을 더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민선6기 구정목표인 '세계시민교육수도 조성'에 맞춰 전담인력 확충과 내실을 확대한 세계시민교육 담당을 신설했다.

세계시민교육담당 신설은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Glocal(Global과 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뜻함)시대에 부응하는 선제적 행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원정희 구청장은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의 우수특구 수상과 우수한 특화사업 성과에 힘입어 교육특구 연계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담당을 신설한 만큼, 국제협력기구 사업과 글로벌 세계시민의식 강화사업, 국제화시대를 이끌 청소년 인재양성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대의 첫 주자가 될 금정구를 기대하시라"고 자신했다.

▶ IBS중앙방송 1.6. / 부울경 뉴스 1.7.

수해 상처 금정구, UN표 ‘반창고’ 붙이나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초
유엔 ‘국제안전도시’ 인증 도전장
10개 필수과제 41개 실천안 마련
하반기 조례 제정·자문단도 구성
2017년 인증 목표 25일 선포식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산 금정구가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UN ISDR(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기구)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도전한다.

금정구는 오는 25일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선포식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UN ISDR ‘국제안전도시’ 캠페인은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촉구하는 UN 운동으로 2010년 시작됐다. 현재 전 세계 2천500여 개 도시와 국내 109개 지자체가 가입했는데, 아직 국내에선 공식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없다.

금정구는 2017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목표로 삼고, UN ISDR이 제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일대.

▶▶▶

한 10가지 필수과제에 따라 41개 세부 시행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재난 관련 단체와 안전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재난복구 중장비를 갖춘 업체와 협약을 맺어 응급 상황 발생 시 공조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제안전도시 추

진에 관한 자체 조례도 제정한다.

또 10월까지 종합적인 재해위험 평가를 위해 금정구 전 지역에 걸쳐 재해위험도와 방재 역량을 평가하는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난 체감도를 조사하고, 안전지표도 개발한다. 특히 대학교수 등 18명의 재해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자연·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 사후 평가 시 지문을 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정구는 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침수 흔적도’를 제작하고 있다. 구청 측은 이달까지 지도 제작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주민들을 위해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지역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구청 민방위 실천훈련센터에 지진 체험장을 설치해 체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동 주민센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재해 경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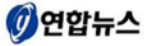
금정구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이상 집중호우로 금정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해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되면, 국내외 관광 추천도시 지정과 여행객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대진 기자 djhee@busan.com

(24.0*15.9)cm

▶ CNB뉴스 2.18. / 연합뉴스 2.20. / 한국일보 2.22. / 부산일보, 리더스경제 2.23.

【부산 금정구 “민원처리 여부 미리 알려줍니다”】



2015년 03월 17일
(사회)

부산 금정구 “민원 처리 여부 미리 알려줍니다”

부산 금정구 “민원 처리 여부 미리 알려줍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 큰 돈이 드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넣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민원의 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민원인이 낸 각종 인·허가나 승인 신청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뜻에서 도입했다.

사전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은 직업소개사업 등록, 보육시설 인가, 건축허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21개 사무다.

대개 15일 정도 걸리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나 변경등록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면 7일 이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를 내면 처리부서에서 서류검토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사전심사청구 관련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다른 문의는 민원봉사과(☎051-516-4263)로 하면 된다.

osh9981@yna.co.kr
(끝)

▶ CNB 3.16. / 연합뉴스, NEWSIS, 부울경뉴스, IBS중앙방송, 뉴스부산 3.17.

【금정구서 세계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 개최】

NEWSIS

2015년 03월 28일
(종합)

금정구서 세계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 개최

【부산=뉴스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세계 청소년 오피니언 리더 49명이 참가하는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주창한 글로벌 교육 우선구상(이하 GEFI) 사무국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하 APCEIU)이 주최하고 금정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참가 청소년들은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랍권 등 세계 37개국의 대표들이다.

한국 대표 참가자는 APCEIU의 공개모집을으로 금정구 대표 3명과 서울·경기에서 참여한 3명이다.

행사는 31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2일까지 금정문화회관에서 발표와 워크숍, 분과활동이 이어진다.

4월 2일 오전에는 관심 주제별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로 인문학서점 인디고 서원에서 대화와 토론을 한다. 평화를 주제로 유엔기념공원과 평화기념관에서 참배 후 세계평화에 대한 의견의 장을 가진다. 또 다양성과 관용의 주제로는 범어사 탐방과 문화해설, 공양 체험을 진행한다.

4월 3일에는 부산시 지역문화탐방으로 국제시장과 영화의 전당, 누리 마루 APEC하우스, 해운대를 둘러보고 저녁 만찬 후 해운대유람선으로 부산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며 워크숍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금정구는 구정목표로 세계 시민교육 수도를 표방하기까지 많은 국제행사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반들을 다져왔다.

유니세프와 협력한 서동 유니세프 마을을 시작으로 유엔협회 세계연맹,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물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특강들을 이어서 개최했고 몇 년 전부터는 국제아트캠핑과 유엔세계평화의 날 행사, 지구촌을 살리는 어스아워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소통을 전담할 세계시민교육담당을 신설하고 지난 1월 말에는 미 국무부와 협력해 한·미청소년 교류캠프를 열었고, 이번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세계 청소년리더십 워크숍을 이끌어 냈다.

5월에는 유네스코회원국 195개국이 참가하는 '2015 세계교육포럼' 전시회에도 지자체 대표로 나설 계획이다.

yulnetphoto@newsis.com

▶ 뉴스와이어, IBS중앙방송, 부울경뉴스 3.26. / 뉴스시스 3.28. / 데일리경제, 시사타임즈,

환경미디어, 브레이크뉴스 3.30.

[3월 28일 한 시간만 지구에게 양보하세요!]

부산일보

2015년 03월 26일
(종합)

"3월 28일 한 시간만 지구에게 양보하세요!"



지난해 서동미로시장 일대에서 열린 '어스 아워(Earth Hour)' 캠페인 행사 현장. 금정구 제공
"한 시간만 지구에게 양보하세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한 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어스 아워(Earth Hour)' 캠페인이 오는 28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진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E)이 지난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한 이 캠페인은 지난해 전 세계 162개국 7천여 도시가 동참하는 등 매년 참가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등 스위치를 내려 환경 보호를 실천하게 된다. 부산에서는 시청과 구·군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부산 웨스턴비치조선호텔 등도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캠페인과 관련해 당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과 서동예술창작공간 일대에서는 '부산 Earth Hour in 서동 - 지구야, 학교가자' 행사가 열린다.

식전 행사로 지구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각종 전시·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에는 주민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는 '청춘다방'을 비롯해 '어스 아워' 영상 상영과 통기타 공연 등이 펼쳐진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서동미로시장 상인과 주민들을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학생 자원봉사 모임인 'UNEP Angel', 부산대학교 환경동아리 '별을 담다' 등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한다.

금정구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저탄소 녹색운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

▶ 부산일보, 부울경뉴스, CNB, IBS중앙방송 3.26. / OBC, 뉴스부산 3.27. / KBS 4.1.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를 만나다” 금정구서 아프리카 영화제】

부산일보

2015년 04월 03일
(종합)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를 만나다” 금정구서 아프리카 영화제

부산에서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 금정구는 3일부터 이틀간 서동예술창작공간과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등지에서 '국제 아프리카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제 아프리카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영화제는 아프리카 영화 상영과 함께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와 문화체험을 등을 제공한다.

사전 행사로 3일 오후 2시부터 부산대 앞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뷰티아프리카' 박윤희 대표, '고고아프리카' 문현규 센터장 등 아프리카 지역전문가의 강연이 열린다. 같은날 오후 6시에는 바로 옆 부산콘텐츠코리아랩 금정서브센터에서 '데노보' 김지성 대표, '도미노이펙트' 김지선 대표 등 아프리카 청년 창업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아프리카 진출의 경험을 나눈다.

4일에는 본 행사로 오전 11시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영화제 개회식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 종단팀', 'DRUM' 등 아프리카 영화 2편이 상영된다.

'아프리카 대륙 종단팀'은 4명의 청년이 아프리카 8개국을 종단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이며, 'DRUM'은 195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를 배경으로 한 국내 미개봉작이다.

영화 상영과 함께 아프리카 토산품·사진·그림책 전시회와 페이스 페인팅, 종이인형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국제 아프리카 영화제 조현민 조직위원장은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지역 주민과 아프리카 진출을 꿈꾸는 이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와 문화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동예술창작공간 홈페이지(www.seodongartspac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1-525-6262. 이대진 기자 djrhee@

- ▶ 글로벌이코노믹스, 브레이크뉴스, 뉴스에듀, 일간경기, NEWSIS, 조선일보, KJT뉴스, 시사타임즈, 국제뉴스, 뉴스부산 4.2. / 부산일보, 환경미디어, 시민일보, 아시아뉴스통신, CNB, 머니투데이, 내외신문, 부울경뉴스 4.3.

【부산 금정구, 공약실천 계획평가 '최우수'】

부산일보

2015년 05월 28일
08면 (사회)

부산 영도 등 6개 구청장 공약 실천 평가 최고 등급

부산 영도구를 비롯해 중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 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를 분석·평가해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평가 분야에서 합산 총점 90점이 넘는 SA등급 지자체는 전국에서 모두 50곳이 선정됐다.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28곳이었다. 부산에서는 연제구가 A등급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평가 하위권을 기록한 지자체도 있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21곳에 D등급을 줬다. 부산에서는 서구가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홈페이지에 공약정보를 겨우 한 줄 짜리로 게시했거나, 그마저도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는 가차 없이 최하위 평가인 '소통 불통' 등급을 받았다. 전국에서 5곳이 불통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얻었지만, 부산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없었다.

민소영 기자

(5.8*17.5)cm

▶ 부경뉴스, 뉴스부산, 부산뉴스타임 5.26. / 부울경뉴스, CJ헬로비전 5.7. / 부산일보 5.28.

【금정구·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MOU】

국제신문

2015년 06월 06일
18면 (인물)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지난 1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서대원)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7.8*5.3)cm

- ▶ 타임뉴스 6.1./ CNB, 뉴스부산, IBS중앙방송, 파이낸셜뉴스, 부경뉴스 6.2./ 국제신문 6.6./ 부산일보 6.8.

【금정구 '인구의 날' 기념 기관표창】

부산일보

2015년 07월 13일
10면 (사회)

난 10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금정구 '인구의 날' 기념 기관표창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가 지

부산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표창을 받은 금정구는 임신부를 위해 하루 2시간씩 모성보호 시간을 갖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등 출산진화정책을 펼쳐왔다.

이대진 기자 djrhee@
(11.8*4.8)cm

- ▶ 서울경제 7.9. / NEWSIS, CNB 7.10. / 부산일보, 파이낸셜뉴스 7.13. / 일간리더스경제 7.14.

【금정구,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 설치 지원】

부산일보

2015년 07월 09일
08면 (사회)

동래구·금정구 침수 예방 차수판 지원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부산 지자체들이 앞다퉈 차수판 설치 지원에 나섰다.

금정구는 최근 추경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해 침수예방을 위한 차수판 설치 공사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알루미늄 재질의 차수판은 상가와 주택 등지 입구에 설치해 빗물의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구청 측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사비의 50%,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또 상습 침수구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주에게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동래구도 지난해 11월 부산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침수방지장치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영세 상가와 주택 등 침수가 우려되는 140세대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차수판 공사를 시작한다.

이대진 기자

(11.9*8.6)cm

- ▶ IBS중앙방송 7.7. / 부울경뉴스, 연합뉴스, 노컷뉴스, NEWSIS, 중앙일보, 일간리더스 경제 7.8. / 부산일보 7.9.

【금정구, 국제워크캠프 개최】



2015년 07월 09일
(종합)

금정구, 국제워크캠프 개최

세계 곳곳에서 모인 청년들 15명 참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 진행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국제워크캠프를 통해 세계 각국 젊은이 15명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서동 일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워크캠프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환경, 건설, 사회, 예술, 교육,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행사이다.

금정구 서동미로시장 등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캠프는 금정구, (사)더나은세상, 국제워크캠프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참가자들은 환경개선활동과 교육봉사를 주로 하게 된다.

캠프 참가자들은 오는 14일 부산에 도착해 선두구동 임석마을회관에 숙소를 두고 15일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서동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서동답사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서동미로시장 내 상인들 대상 인터뷰, 취약지역 벽화작업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동미로시장에서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서동 동상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며 범어사에서 발우공양 및 다도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도 하게 된다.

세계시민교육 수도를 표방하는 금정구는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와 ‘유니세프협력도시’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세계의 청년들이 금정구에 모여 문화교류의 장을 열고 지속적인 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국제워크캠프를 적극 유치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국제워크캠프 참가자들의 봉사활동으로 서동 주민들이 다국적 참가자들과 교류하면서 폭넓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다국적 청년참가자를 통해 금정구가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이양지 기자)

▶ IBS중앙방송, 일간리더스경제 7.8. / CNB뉴스, 부울경뉴스 7.9.

【'정부 3.0 생애주기서비스' 공모, 금정구 전국 최우수 선정】

부산일보

2015년 08월 31일
27면 (인물)

'정부 3.0 생애주기서비스' 공모 부산 금정구 전국 최우수 구에 선정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사진)는 지난 25일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생애주기서비스'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됐다

고 밝혔다.

금정구는 '결혼에서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원스톱 맞춤 서비스'로 공모사업에 신청해 부산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사업은 민원인이 결혼에서 양육까지 구청, 동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4곳 이상의 기관(부서) 등을 방문해야 하는 것을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를 통해 한곳에서 혼인과 출생신고,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금정구 모델을 연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임원철 기자

(6.7*12.8)cm

- ▶ NSP통신, CNB뉴스, 부울경뉴스 8.25. / 국제신문, 브레이크뉴스 8.26. / 일간리더스경제 8.27. / 부산일보, KBS 8.31. /

초가을 밤 부산, 거리축제로 즐긴다

가을로 들어가는 길목인 이번 주말, 도시의 밤은 거리 축제로 후끈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주말 시민들의 생활 공간에서 두 개의 도심형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17~20일 '거리문화축제-제로페스티벌 2015'와 19~20일 '제1회 부산시민공원 재즈페스티벌'이 그것. 다양성을 충족한다는 도심형 페스티벌의 취지에 맞게 공연뿐만 아니라 세미나, 프리마켓, 콩쿠르도 펼쳐져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 장전동서 제로페스티벌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제로페스티벌은 올해 본 무대가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인근 장전동으로 바뀌었다. 이는 매년 NO백화점 입점 상인들과 갈등을 겪었는데다가 최근 부산대 주변 임대료가 뛰면서 밴드와 예술가들이 장전동 쪽으로 근거지를 옮긴 데 따른 것이다.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인근 장성시장 골목이 새 보금자리.

이들은 '예술가들이 재장전하는 장전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장전역 아래 온천천변과 장성시장 주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 일본, 모로코, 이집트, 호주, 미국 등 6개국에서 50여 팀 150여 명의 국내외 단체와 아티스트가 참가한다.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7일 야외 홍보퍼레이드와 플래시몹을 시작으로 18, 19일엔 가수 김일두와 하쿠성호, 나카&메구미 등 12개 팀이 실내 공연을 펼치고 단편선과 선원



제1회 부산시민공원재즈페스티벌이 19~20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8월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버스킹빌리지페스티벌의 모습. 아래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로페스티벌의 공연 모습. 부산시민공원-재미난 복수 제공

장전동 '제로페스티벌'
6개국 예술가 150명 참가
20일까지 프리마켓 등 진행

시민공원 '재즈페스티벌'
19~20일 콩쿠르도 진행
실력과 뮤지션들 총집합



들, 하퍼스, 김프로 외에도 6개 팀이 장전역 골다리에서 야외공연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에선 일본과 호주의 문화기획자가 참석한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생존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물건을 가져와 사고팔며 이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기부 프리마켓도 진행한다.

재미난 복수 김건우 대표는 "장전동 일원을 예술가의 활동 공간이자 청년문화의 중심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공원에서 재즈를

오는 19일과 20일 다가오는 주말엔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과 미로정원 옆 상설무대에서 제1회 부산시민공원 재즈페스티벌이 열린

다. 부산시설공단이 주최하고 부산시민공원, 부산재즈협회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JK 김동욱과 재즈트리오 지브라, SAJA밴드와 남성재즈보컬 Jamba OJ, 18인조 재즈빅밴드인 AEOB 빅밴드를 포함한 재즈뮤지션 스무 팀이 참가한다.

재즈뮤지션의 공연 외에도 신인뮤지션이 실력을 겨루는 '제1회 전국재즈콩쿠르'도 동시에 진행된다. 동영상 심사를 거친 20개의 팀이 부산시민공원 내 도심백사장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콩쿠르를 거쳐 대상을 수상한 팀은 20일 오프닝 무대에 오른다.

재즈 공연이 열리는 무대 옆 시민사랑채에서는 '알기 쉬운 재즈 이야기'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LP판과 악기를 만져보는 체험부스도 마련된다. 조소희 기자 sso@busan.com

(24.0*24.4)cm

▶ 뉴스1 9.15. / IBS중앙방송, 브레이크뉴스 9.16. / 부산일보, 일간리더스경제 9.17.

전통시장, 어디까지 가 봤니?

서동미로시장, 여행상품 개발 하나투어와 연계 전국 첫 시도

전국 처음으로 부산의 한 전통시장과 여행사가 손을 잡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체험형 여행상품'을 출시하기로 해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정구 서동미로시장 육성사업단과 HNT 하나투어는 7일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서동미로시장 관광콘텐츠 유통 확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통시장을 구석구석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사업단과 하나투어는 연내에 '서동미로시장 이용권'을 만들어 보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권'도 내놓을 계획이다.

'시장 이용권'은 놀이동산 이용권처럼 한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서동미로시장 시설을 이용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중국·일본 등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여행상품도 올해 안에 출시한다.

여행 코스에는 전통시장 탐방은 물론, 석골문화예술촌과 서동예술창작공간 등 시장 주변 예술공간 입주작가들과 함께하는 예술문화체험도 포함된다.

시장 이용권과 여행상품은 하나투어 홈페이지와 영남지역 여행사 매장을 통해 홍보·판매될 예정이다.

서동미로시장 육성사업단 조성백 단장은 "타지역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문 여행사와 공동으로 상품을 기획·개발하기로 했다"며 "특히 작가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신선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투어용 이용권 개념을 도입하는 건 국내 처음"이라며 "하나투어의 전문성을 더한 '시장체험형 여행상품'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미로시장은 1970년대 형성된 서동전통골목시장, 서동향토시장, 서동시장 등 3개 전통시장을 합쳐 지난해 재탄생했다. 3개년 계획으로 내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으로의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이대진 기자 djrhee@

(11.9*17.0)cm

- ▶ 부산일보, 국제신문, NEWSIS, 아주경제, 조세일보 10.12. / 한국일보, 이데일리 10.13.

【금정구,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서 2년 연속 '최우수'】



2015년 10월 16일
(종합)

금정구,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서 2년 연속 '최우수'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가 14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일·가정 균형 구·군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최우수를 획득했다.

부산시는 범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출산장려정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구·군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금정구는 2004년 부산 지자체 중 최초로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해 출산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복무조례를 개정해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설하고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시 부모님을 초대해 은혜에 감사드리며 임용장 수여를 함께하는 등 가족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3.0 공모사업의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에서 개발 중인 전국 확산모델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기대와 아빠를 육아에 참여시키는 '행복한 아버지학교', '수요일엔 여왕님과 행복한 만찬을' 프로그램,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는 '신혼부부대상 산전 필수검진 무료제공' 등이 출산장려시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며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육아고민 해결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빠육아의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양육지원 정책에 더 매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 시상식은 다음달 3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8회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CNB=최원석 기자)

▶ CNB뉴스, IBS중앙방송, 부울경뉴스 10.16. / 일간리더스경제 10.19.

【금정구, '부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CNBNEWS

2015년 11월 27일
(종합)

금정구, '부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영감 프로젝트' 운영, 청년들의 참신한 감각·아이디어 발굴 공로



부산시 주관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금정구의 규제개혁 프로젝트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며 최고상과 최다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2015 부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정구 규제개혁 프로젝트팀인 'young感(영감) 프로젝트' 5개 팀 중 1개 팀이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2개 팀이 3등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진된 이번 공모에는 시민,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등 각종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확정일자 설명의무 부과 및 대항력 발생 관련 법 개정' 제안은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전입신고한 날에 즉시 대항력(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갖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대학가 밀집 지역으로 대학생 거주 비율이 높은 금정구에서 원룸 임대차 등 계약 시 확정일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또 임대차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한 규정은 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므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부산시 유료도로(거가대교, 광안대교,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의 통행료 징수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일원화 하자는 제안과 시내버스와 급행버스(좌석버스) 청소년 요금의 경우 현금과 카드 결제금액 차이가 성인·어린이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제안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그 동안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금정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과 감각으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일 자리를 창출하고, 구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대학생들과 함께 '영감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영감 프로젝트'는 대학생 26명과 금정구 신규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총 33명 5개 팀으로 6월초에 발대식을 갖고 '규제 발굴 및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CNB=최원석 기자)

▶ CNB뉴스, IBS중앙방송 11.27. / 부울경뉴스 11.28. / KBS 11.30.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센터 개소】

부산일보

2015년 12월 02일
08면 (사회)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센터 개소

부산시와 금정구청은 1일 부산 금정구 서동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희망오차마을은 1960년대 말 부산 중구·서구 일대 고지대 철거민들의 정착이주촌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53m² 넓이의 땅에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은 1층이 경로당, 2층이 회의실, 3·4층이 마을지기사무소로 활용된다.

(5.7*7.7)cm

- ▶ 경향신문, IBS중앙방송 11.29. / 부울경뉴스 11.30. / 일간리더스경제, CJ헬로비전 12.1. / 부산일보 12.2.

【금정구 만남의 광장, 부산시 랜드마크로 재정비】

리더스경제

2015년 12월 08일
(사회)

금정구 만남의 광장, 부산시 랜드마크로 재정비

김신은 기자 kse@leaders.kr

9일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도심 속 휴식공원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



금정구 만남의 광장 전체 조감도. (사진제공 = 금정구청)

금정구 '만남의 광장'이 부산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난다.

금정구는 9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계획·디자인·토목·조경·교통·문화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금정구는 이번 시설개선 용역을 통해 만남의 광장을 도심 속 휴식공원과 복합문화공간개발로 재정비해 금정구의 상징이자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만남의 광장은 편의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부산시의 관문으로서 상징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정구는 지난해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4월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부산 시민과 만남의 광장 인근 관계자 등 700여명의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이용자 특성 분석, 교통량 조사 등 사전 시설현황을 철저히 분석했다.

또 6개 분야(디자인, 토목, 조경, 교통, 문화, 관광) 외부 자문단과 구 실무부서를 연계한 총 12명의 용역 자문단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의 자문단회의 및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될 시설개선의 주요내용은 △부산시 관문 광장으로서의 상징성강화 △인접시설인 문화회관과 문화벨트 형성 △만남의 광장 환경개선 △교통체계 개선 △시민 보행접근성 향상 등 이용자 중심 공간 개발 등이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이 완료되면 누구나 찾고 싶은 여가 휴식공간을 겸비한 부산의 첫 명소로서 부산시와 금정구의 이미지 상승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며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은 기자 kse@leaders.kr

▶ 일간리더스경제, 연합뉴스 12.8. / NEWSIS, IBS중앙방송, 부울경뉴스 12.9.

【결혼·양육 한번에... 금정구 행복바구니센터 개소】

국제신문

2015년 12월 14일
08면 (사회)

결혼·양육 한번에... 금정구 행복바구니센터 개소

4곳 이상 방문하는 불편 해소 행자부 공모전서 전국 최우수

결혼과 양육에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금정구는 15일 금정구 보건소에서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를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금정구의 다자녀 2세대를 초청해 산모와 자녀 양육을 위한 통합 서비스 신청을 시연한다.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는 혼인·출생 신고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을 관련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4

곳 이상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구는 금정구 보건소 1층에는 행정서비스 창구 및 예방접종실을, 3층에는 행복바구니센터 공간을 마련한다. 1층에서는 혼인·출생 신고를 비롯해 ▷신혼부부와 예비산모 산전검사 ▷임산부 주기별 서비스 ▷임산부 프로그램 및 행사 ▷예방접종 ▷출산지원금 및 양육수당 등의 서비스를 처리한다. 3층 센터에서는 베이비 마사지 및 오감발달 교실, 아동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 사업으로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3.0 생애주기서비스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행복바구니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11.4*10.8)cm

- ▶ NEWSIS 12.12. / 경향신문 12.13. / 국제신문, 부울경뉴스 12.14. / 연합뉴스, IBS중앙방송 12.15. / 동아일보, 서울신문 12.16. / 부산일보 12.17.